

엔비디아 손잡은 네이버, 100억달러 AI 인프라 ‘승부수’

네이버에 10억달러 유상증자 대금
브룩필드의 90억달러 투자와 연계
핵심 고객사 계약, 연내 공개 가능성
상반기 55MW 규모 데이터센터 완공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브룩필드의 대규모 투자 협력을 발판으로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광고·커머스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총 100억달러(약 133조5300억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구상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달 말 엔비디아의 투자금 납입을 시작으로 핵심 고객사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이 본격화될 경우 네이버의 사업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IT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30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10억달러 규모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계기로 네오클라우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네오클라우드에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기업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이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글로벌



네이버가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AI가 만든 이미지.

별 기업들의 컴퓨팅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와 GPU 확보가 AI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엔비디아 10억달러 투자…네오클라우드 사업 첫 관문

네이버의 AI 인프라 전략은 엔비디아와 브룩필드의 투자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오는 30일 네이버에 10억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이는 브룩

필드의 90억달러 규모 투자와 연계된 특수목적법인(SPV) 설립의 선결 조건으로, 전체 투자 구상은 100억달러에 달한다.

증권가는 엔비디아의 투자금 납입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이달 중 네오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고객사 확보도 주요 변수다. AI 데이터센터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장기 공급 계약이 중요한 만큼 실제 고객사와의 계약 여

부가 사업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고객사와의 구체적인 공급 계약이 연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계약이 가시화되면 네이버의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기존 클라우드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고성능 GPU 기반 컴퓨팅 서비스 공급을 통해 글로벌 AI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3분기 영업이익 11.8% 감소 전망…수익성 부담 확대

네이버가 AI 인프라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기존 플랫폼 사업의 성장 둔화도 자리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네이버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3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11.8% 감소한 5030억원으로 추정했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5482억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주요 수익원인 광고와 커머스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비용 증가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광고 매출은 1조4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커머스 매출은 4998억원으로 19.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인프라 비용은 2457억원으로 12.4% 늘고, 마케팅 비용은 6377억원으로 2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결제 생태계 확대를 위한 'Npay Connect' 단말기 보급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내년 AI 데이터센터 매출 본격화 기대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네오클라우드 사업이 2027년부터 실적에 기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2027년 상반기 55메가와트(M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완공되고 같은 해 3분기부터 관련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본 부담과 GPU 확보, 데이터센터 가동률, 핵심 고객사 계약 등이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변수로 꼽혔다.

결국 엔비디아의 투자금 납입 이후 브룩필드의 자금 조달과 고객사 계약이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되는지가 네이버 AI 인프라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KT, ‘모두의 AI’ 12월 출시 앞두고 협력 확대

KT컨소시엄, AI 생태계 확장 논의
검색·금융 등 생활밀착 AI 서비스

KT는 12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빌딩에서 ‘모두의 AI 콘서트서밋 2026’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 AI’를 통해 구성한 KT컨소시엄 참여기업과 함께 ‘연결을 넘어 실행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박운영 KT 대표도 참석해 모두의 AI 서비스 준비 현황과 정식 출시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KT컨소시엄은 다양한 국산 AI 모델과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이용자에게 끊임 없는 AI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각 기업이 보유한 AI 기술과 서비스를 연계해 검색, 교육, 금융, 콘텐츠, 부동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된 AI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먼저, 서비스 초기에는 다양한 질문의도를 정교하게 파악해 최적을 답변을 제



박운영 KT 대표이사(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모두의 AI’ KT컨소시엄 참여 기업 대표와 경영진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KT

공하고 일상 생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주력한다. 사용자는 날씨와 생활 정보, 주식, 인물, 콘텐츠 관련 정보를 자연어로 물어볼 수 있다.

또한 12월 정식 서비스 출시 이후 발전 방향과 서비스 고도화 전략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다. 참여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와 연계를 확대해 이용자가 더욱 풍부한 AI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

다. 컨소시엄은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서비스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협력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하나로 연결된 AI 경험을 제공하고, 국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KT는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참여기업 간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msjo@

SKT, 성수 거점으로 문화유산 알린다

민관 협력 ‘K-보물길’ 참여

SK텔레콤이 T 팩토리 성수를 거점으로 문화관광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SK텔레콤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민관협력 문화관광 프로젝트 ‘K-보물길’에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 문화유물을 소재로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선보이고, 이를 지역박물관 방문과 여행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2027~2029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마련했다.

핵심 공간은 SK텔레콤이 서울 성수동에서 운영하는 ‘T 팩토리 성수’다. 자사의 공간 기획 역량을 통해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공동 전시를 열고, 문화유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청년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성수의 특성을 살려 박물관과 문화유물을 여행과 연결한 전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문화유물과 박물관 상품을 의미하는 ‘뫓즈’를 선보이고, 방문객이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낼 예정이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참여기관 간 협업과 지역관광 연계, 사업 기획·운영 및 홍보를 지원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문 감수를 통한 콘텐츠 협력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뫓즈 협업 상품의 공동 기획·제작을 맡아 프로젝트에 전문성을 더한다.

오는 11월 첫 협업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T 팩토리 성수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역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동선을 마련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조민선 기자

네이버지도, AI 글래스 길안내 지원

구글·삼성·메타와 맞손

네이버가 구글·삼성전자·메타와 손잡고 네이버지도의 길안내 서비스를 인공지능(AI) 글래스로 확대한다.

네이버는 국내 지도 서비스 최초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 AI 글래스 기반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메타의 ‘레이벤 메타’와 ‘오클리 메타’에서 먼저 지원되며, 연내 출시 예정인 구글·삼성의 ‘인텔리전트 아이웨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이동 중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지 않고도 AI 글래스를 통해 목적지까지 음성으

로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동 방향은 물론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등 경로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네이버지도는 지난 6월 선보인 ‘실시간 도로 길안내’를 AI 글래스로 확장했다. 서비스는 안드로이드에서 우선 지원하고 iOS에도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AI 글래스 전용 음성 호출 기능도 도입한다. 이용자가 ‘도착 예정 시간 알려줘’ 등 음성으로 질문하면 네이버지도가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특히 구글·삼성의 인텔리전트 아이웨어에서는 구글의 AI 모델 ‘제미니’를 통해 네이버지도를 음성으로 실행하고 길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웹툰, 뉴욕 코믹콘서 존재감 뽐내

4일간 부스 2곳에 5만명 방문

네이버웹툰의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 코믹콘 2026’에서 북미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콘텐츠 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뉴욕 자비츠 센터에서 열린 뉴욕 코믹콘에 참가해 단독 부스 2곳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욕 코믹콘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대중문화

행사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참가했으며, 올해는 부스 규모를 확대해 현지 이용자와 만났다.

약 100평 규모의 웹툰 전용 부스에서는 인기 웹툰 ‘포그랜드’의 세계관을 재현하고 6m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했다. 웹툰 감상 이벤트와 코스튬 플레이, 한정판 상품 판매, 작가 사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행사 기간 4일간 약 5만명이 방문했다.

별도 부스에서는 오는 11월 16일 출시 예정인 ‘마블 코믹스’ 앱을 공개했다. 웹



네이버웹툰의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 코믹콘 2026’에서 북미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콘텐츠 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네이버웹툰

툰 엔터테인먼트가 개발·운영하는 이 앱은 마블과 스타워즈, 20세기 스튜디오의 작품 3만5000편 이상을 디지털 만화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